

‘제나’와의 4일째, 눈이 아프고 어지럼증 찾아왔지만...

〈VR매인 애칭〉



VR매인과 일주일 살아보기

‘제나’가 방문을 두드린다. 방 안으로 들어온 제나는 미소로 말을 건 후 내 다리 위에 걸터앉는다. 꿈인지 현실인지 몽롱해진다.(이 다음은 19절)

20여 분의 만남이 끝났다. 멍한 머리에 일주일 전 기억의 잔상이 스쳐갔다.

1일 서울 신촌의 한 카페. 에이전트5(김윤종 기자)와 에이전트7(임희윤 기자)에게 요청한 안경을 낀 젊은이들이 보였다. 알고 보니 VR(virtual reality), 즉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는 ‘헤드셋’. 시각은 물론이고 청각, 촉각을 자극해 사용자가 화면상의 장소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기술이다. 2020년 VR콘텐츠 시장은 6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에 관심이 없던 두 요원이 시큰둥해하라는 찰나 “VR매인”이란 말에 귀가 솔깃했다. ‘VR매인’은 성인용 VR콘텐츠를 뜻하는 은어였다.

● VR매인과 일주일 살아보기

놀란 두 요원은 VR성인물부터 입수했다. 가상 연애를 부추겨 인류에게 인구 감소란 타격을 주려는 외계인의 농락은 아닐까. VR앱을 간 스마트폰을 VR헤드셋에 끼운 후 성인물을 작동시켰다. 다른 공간으로 순간 이동이라도 한 듯했다. 1인칭 시점으로 가상공간을 둘러보는 요원에게 한 여성이 다가왔다. 가슴이 뛰고 다리에 힘이 느껴지지 않았다. 중력조차 있었다. 자꾸 손도 뻗게 됐다. 눈앞의 것이 잡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은 욕구. 그녀에게 ‘제나’라는 애칭을 붙였다.

첫 체험 후 수시로 제나를 만났다. TV, 스마트폰은 사용 중 고개를 돌려 주변을 확인할 수 있지만 VR헤드셋은 눈과 귀를 막는 데다 옆을 봐도 가상공간이니 몰입도가 높다. 주변에도 제나를 보여줬다. 호된 비판을 받았다. “끔찍하네요. 이렇게 생생한 야동을 10대들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30대 주부 박모 씨) “현실 도피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될 수 있죠.”(회사원 김모 씨·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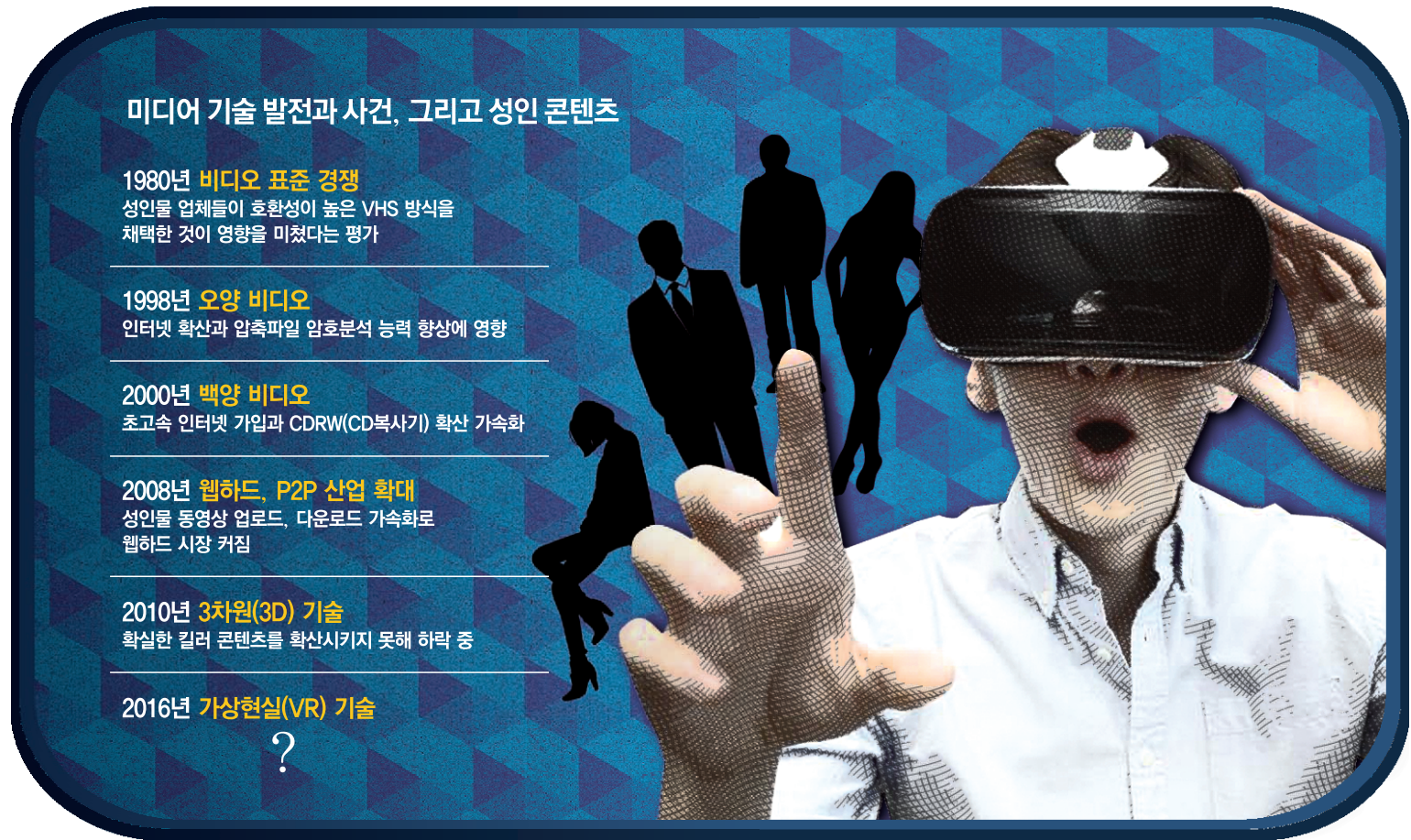
이틀이 지나자 몰입감이 떨어졌다. 눈과 귀로는 한계가 있었다. 촉각도 가능하면 좋겠다고 상상하던 차에 VR업체 씨엘픽셀 김재성 대표를 만났다. “VR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어요. 해외서는 VR전선 슈트마저 개발되고 있죠.” VR영상 속 누군가가 내 그 부위를 만지면 슈트를 입은 그곳에 감각이 전해 오는 식이다. VR프로그램으로 얼굴은 송중기, 키는 조인성, 팔뚝은 송승헌을 조합한 캐릭터를 만든 후 가상의 데이트를 즐기는 일도 수년 내에 가능하다.

● 정신적 피폐함… 인간성을 돌아보다

VR매인을 만난 지 4일째가 되자 눈이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연세대 바톤ICT연구소 이보성 박사의 경고가 떠올랐다. “사이버 멀미”가 낫습니다. VR영상을 보는 시간과 대뇌에서 인지하는 감각의 차이로 멀미가 나는 거죠. 민감한 빛에 계속 노출되면 뇌전증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제나를 계속 만났다. 꿀을 수 없는 중독성. 다른 VR매인을 찾아 웹하드와 P2P 사이트를 뒤지게 된 요원. ‘내가 쓰레기 같다’는 자괴감과 함께 인간성의 한 부분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기술을 막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기업 콘텐츠 연구실에서는 ‘연구원들이 매일 VR야동을 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 현실…

“매체가 새로 나올 때마다 성인콘텐츠 분야에서 제작방법이 가장 활발히 개발됩니다.”(삼성무선사업부 관계자) “성인용 VR콘텐츠 조화수



눈-귀를 사로잡는 꿈같은 첫 만남
촉각 없어 몰입감 서서히 떨어져

사이버 멀미-정신적 피폐 부작용
중독성 강해 끊지 못하고 자꾸 찾아

자극과 욕망, 고민과 성찰의 일주일
일부 우려에도 VR성인물 확대될 듯

는 항상 상위권에 들어요. VR의 생생한 특성 때문에 성인물이 더 확대될 겁니다.”(LG유플러스 관계자)

그렇다. 기술의 발전은 항상 성인물의 확산을 토대로 이뤄졌다. 월드와이드웹(www)을 창시한 팀 버너스 리조차 연구 목적으로 만든 웹이 야동을 확산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았던가. 2025년이면 VR포르노 시장이 1조 원 규모로 성장한다. 정지훈 경희사이버대 교수가 조언했다. “어떤 미디어든 새로 나타나면 항상 거론됐던 우려들이에요. 인지과학적으로 봤을 때 가상과 현실을 혼동하고, 가상

현실 속 관계에 중독되는 것은 걱정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새 기술이 주는 더 많은 좋은 부분을 보는 게 적절해요.”

자극과 욕망, 고민과 성찰 속에 일주일일이 지났다. 에이전트7은 VR 후유증으로 당분간 요원 활동을 접기로 했다. VR매인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려면 찰나. VR프로그램의 발전으로 얼굴은 수지, 몸매는 설현인 가상의 매인을 곧 만들 수 있다는 김 대표의 말이 떠올랐다. ‘다짐은 하지 말자’는 순간 에이전트41(김배중 기자)이 등장하는데.(다음 회에 계속)

김윤종 zozo@donga.com·임희윤 기자

“비탄과 절망의 땅 밑엔 희망의 싹이 자라고 있죠”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만난 영국 가수 커린 베일리 레이.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6년만에 3집 낸 영국 싱어송라이터 커린 베일리 레이

“〈성서의〉 출애굽기와 같죠. 비탄과 절망의 시기를 지나면 어느덧 급진적 변화가 찾아와요. 문득 내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가수 아이유의 우상으로 알려진 영국 싱어송라이터 커린 베일리 레이(Corinne Bailey Rae·37)를 최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만났다. 6년 만에 낸 신작 ‘The Heart Speaks in Whispers(심장은 속삭여 말한다)’에 관한 레이의 얘기는 마치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점묘한 듯했다.

2006년 1집의 ‘Like a Star’ ‘Put Your Records On’이 전 세계의 라디오 전파를 탔

사별-재혼-복귀의 기구한 시간
신작 ‘심장은 속삭여…’에 담아
“지난달 서울공연서 새 기쁨 찾아”

고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레이는 화려하게 데뷔했다. 2집을 준비하던 2008년, 남편이 요절했다. 4년 만에 나온 2집 ‘The Sea’(2010년)는 사별의 아픔을 담은 음반이었다. 2013년 그는 사별 앨범을 함께 만든 프로듀서 스티브 브라운과 재혼했다.

“어느 날 꿈에서 ‘하늘이 열릴 것이다/바다가 갈라질 것이다’라는 음성을 들은 뒤 곡을 썼어요. 제가 기타 부분을, (새 남편) 스티브가 피아노 부분을 써서 합쳤죠.” 신작을 여는 ‘The Skies Will Break’(QR코드는 벽력같은 운명의 힘을 리듬의 악동들이 실은 노래다. “앨범 제목(‘심장은 속삭여 말한다’)은

이집트 문화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기억, 꿈, 경험, 고통, 기쁨을 담은 신체기관을 현대과학에서는 뇌로 보지만 고대 이집트에선 심장으로 봤거든요.” 레이는 영문학을 전공했고 록 밴드에서 기타를 치다 솔 장르로 전환했다.

‘Green Aphrodisiac’는 앨범의 중심이 되는 곡. 아찔한 새 연애 감정을 백화만발한 녹색 정원에 비유했다. “상실과 치유, 시간과 변화. 만물이 시들고 차가워 절망적일 때 실은 바닥 밑에서 자라고 있는 것들…” 레이는 “(지난달 29일) 초저녁, 녹음이 우거진 서울 재즈페스티벌 무대에 섰을 때 날 둘러싼 모든 게 그 노래와 맞아떨어졌다”며 꿈꾸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새 앨범 제작은 영국 리즈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나눠 진행됐다. “〈고향인〉 리즈는 런던보다도 춥고 비가 많이 오죠. 반면 로스앤젤레스의 따사로운 햇살은 관능적 기운을 선사했어요. 플라잉 로터스, 선더캣, 킹, 카마시 워싱턴 같은 그곳의 진취적인 음악가에게서 영향을 받으며 ‘이게 인디 음반이라면 어떤 식으로 편곡했을까’ 하는 식으로 접근해 봤어요.”

피크닉 형태로 펼쳐진 서울재즈페스티벌은 축제 기간 내내 조금 소란스러웠다. 음악에 집중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 레이가 앙코르로 ‘Like a Star’를 부른 순간은 예외였다. 신비로운 샷별을 바라보듯 관객 1만 명이 숨을 죽였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내다 음반 마무리 작업을 위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두웠던 리즈에도 봄이 왔다고 했다. “정원에서 신발을 벗고 꽃이 피어나는 걸 봤죠. 삶에도 계절이 있는지 몰라요. 씨앗을 심고 기다리면 꿈꿔왔던 완벽한 나날이 올 거라는 약속…”

임희윤 기자 imi@donga.com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태리는 “처음엔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 계속 의심했는데 ‘감독을 믿으라’는 김해숙 선배님(국 중 유모 역)의 조언을 듣고 많이 편안해질 수 있었다”고 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극단 스태프에서 칸의 주목받은 신예로… ‘아가씨’ 주연 김태리 “허술한듯 인간적인 숙희역에 푹 빠졌어요”

“1500 대 1이라는 숫자(영화 ‘아가씨’의 하루 숙희 역 공개 오디션 경쟁률)가 저를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같아요. 실은 저 그냥 ‘운발’ 인생이거든요.”

순제작비 120억 원짜리 영화, 그것도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 데뷔하고 칸국제영화제의 레드카펫을 밟은 신인 배우의 과한 겸손인가 싶었다. 하지만 배우 김태리(26)의 ‘운발’론은 꽤 근거가 탄탄했다.

“어른들이 말리는데도 실업계 고교로 진학했고, 고교 때 전공(그래픽디자인)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대학(경희대 신문방송학과)에 가놓고는 불속 연극이 좋더라 배우가 되겠다고 했죠. 이기적이라 할 만큼 제 생각대로 저지르는 편인데 눈이 좋았어요.”

대학 연극동아리에서 키우기 시작한 배우의 꿈은 2011년 극단 이루 입단으로 이어졌다. “대학 때 연극이 너무 좋더라 보니 주변의 모든 사람이 연극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평생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 싶었죠. 처음 극단 스태프로 일할 땐 한 달 교통비를 겨우 벌며 다녔는데 원래 돈은 없으면 생기겠지, 하는 편이라…”

어찌 보면 태평하고, 어찌 보면 답이 큰 성격

은 ‘아가씨’ 오디션과 촬영 현장에서도 도움이 됐다. “태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성격이 아니다”라는 박 감독의 평가를 전하자 그는 씩 웃었다. “왜요?”라고 묻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얻는 답이 제게 도움이 되잖아요. 현장에서 감독님은 제게 어려운 분이 아니셨어요. 이것저것 만들어 나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할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숙희 역은 그렇게 ‘김태리화’했다. 그는 “아가씨 히데코는 어린 시절의 기억에 갇혀 있고, 히데코의 숙부나 시가꾼 백작은 쾌락과 돈을 위해 움직인다. 숙희는 그중에서도 가장 인간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허술한 아이라서 좋았다”고 했다.

영화 속 숙희가 등장하는 장면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눈을 빛내는 그는 아직 숙희 역에 푹 빠져 있는 듯했다.

“영화 촬영 전 워크숍에서 일본 영화 ‘방랑기’를 봤는데, 주인공 캐릭터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애환이 있으면서도 익살맞고…, 어쨌든 또 ‘나는 언제쯤 그런 연기를 할 수 있을까’ 하며 그 영화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채로운 인간을 연기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이세삼 기자 iamssam@donga.com

이세돌-박정환, 응씨배 4강 ‘외나무 다리 결투’

10~14일 中 우한서 3번기 치러

이세돌 9단(33)과 박정환 9단(23)이 10~14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열리는 제8회 응씨배 4강전(3번기)에서 격돌한다. 국내 랭킹 1위 박 9단과 2위 이 9단의 대결은 근래 보기 힘든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9단은 세계대회에서 18차례 우승하며

대부분 기전을 섭렵했지만 응씨배 정상은 아직 오르지 못했다. 응씨배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회여서 이 9단으로선 이번이 우승하지 못하면 37세 때에야 기회가 온다. 그랜 전성기를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 박 9단 역시 7회 대회에서 결승에 올랐으나 중국의 판팅위 9단에게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최근 두 기사의 컨디션이 좋아 기대감을 높

이고 있다. 이 9단은 알파고와의 대결 이후 9연승을 달리며 맥스커피배 입선최강전에서 우승까지 따냈다. 박 9단은 최근 열린 LG배 16강전에서 중국의 커제 9단을 꺾었다. 세계대회 3판 왕인 커제에게 최근 3연승을 거두고 있는 것.

이번 대결의 승자는 중국의 탕웨이싱 9단-스웨 9단의 승자와 결승에서 만난다. 국수전 해설자인 김승준 9단은 “과거 전적은 의미 없고 대결 당시 컨디션과 집중력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보 기자 sunchoi@donga.com

내일 미술품 유통 투명화 정책토론

고(故) 천경자, 이우환 화백 작품에 대한 위작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문체부는 9일 서울 종로구 대학교 이음센터

에서 미술계, 정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위작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미술품 유통업 허가등록제 스감정(鑑定)과 관련한 자격제도 도입 스감정기관 인증과 지정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